

第54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7月6日(土) 午前10時 開式

第54回(臨時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開會辭
1. 閉式

(司會：議事係長 鄭恩秀)

(10時00分 開式)

○議事係長 鄭恩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심장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기대와 여망속에, 어느덧 성북구의회 제2대 개원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54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

각하며 우리구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과 지방의 갈등 등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까지 져야하는 정책 결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대적 흐름의 변화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문제의 성공적인 수행은 자치발전과 정착을 위한 제도 못지 않게 자치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사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은 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사고를 변환시키고 끊임없는 연구와 아이디어의 창출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구민과 의회 공직자간의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어 나갈 때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성북구의회 제2대 의장으로서 1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볼 때, 성북구의 지방자치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과 의회, 구청의 역할과 의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왔습니다.

각자가 자기 권리만의 이기적인 주장보다는 공익과 양보를,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는 기존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중앙정부의 의존적인 태도를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합리화와 직원의 자질향상, 제도적인 절차의 합리화 등 제도적인 대책과 제도내에 존재하는 구성원 차원의 대책등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대책들이 실현되면, 성북 행정의 구민적 쳐저수준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지방자치차원의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대책의 주체는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모두”, 바로 “나”라는 주체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의회와 구청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양자는 상호분담과 상호 협동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와 구청은 관념적으로는 대립되고 상극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조직방식의 문제지 실제에 있어서는 양자가 전체로서 구민 복지에 대하여 분담과 협동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는 '96년도 의정 전반기를 마감하고 의정 후반기를 시작하려는 중요하고 뜻있는 시점입니다.

의원 여러분은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를 심도있게 생각하여 무게있는 구정질문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은,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鄭恩秀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

겠습니다.

(10時09分 閉式)